

익산시 보건소 새 단장

사업비 31억1900만원 투입 올해 6월 말 완공 · 4층 증축 완료
치매통합서비스 구축 사업비 25억원 투입 내년 12월 준공 목표

익산시보건소 증·개축 공사가 최근 완료돼 한 단계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보건소는 2018년 상반기 동안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한 공공보건인프라를 확충했다. 신동에 위치한 보건소의 증·개축 및 오산보건지소 신축이 완료된 데 이어, 응포보건지소, 장암보건지소,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사가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노년층 치매질환을 극복하고 건강 100세를 위한 치매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해 사업비 25억원을 투입,

치매인심센터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다. 보건소 증·개축 공사는 사업비 31억1900만원을 투입, 지난해 11월에 착공, 올해 6월 말 완공되었으며, 1층에서 3층까지의 리모델링과 4층 증축을 완료했다.

한편 오산보건지소 신축은 사업비 7억3100만원을 투입, 오산면 오산로 14-8 위치에 연면적 325.71㎡, 지상2층의 현대식 건물로 지난해 10월에 착공, 지난 5월 완공했으며, 진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새로운 모



익산시보건소 증·개축 공사가 최근 완료돼 한 단계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습으로 탈바꿈했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총사업비 37억원을 투입, 금마면에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응포면 응포보건지소 신축, 남산면 장암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차질 없

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공공보건 의료기관 신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취업역량강화 특강

익산시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익산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특강을 진행했다.

원광대 대학일자리센터와 협업,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익산시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취업역량강화 특강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특강은 기업 실무 경험이 있는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가 개인의 역량 파악과 기업 분석,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관련 특강을 진행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 시간에는 많은 질의응답이 쏟아졌다.

정현을 시장은 "앞으로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발굴, 참여자가 다양한 업무경험과 능력을 쌓아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사업 등 22개 사업 82편을 선발하였으며 3월부터 최장 10개월 동안 근무 중이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신청사 건립 관련 설문조사

약 1개월 29개 읍·면·동의 통·리장과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실시
시 홈페이지 설문조사 방 개설해 시민누구나 설문 참여하도록 운영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북카페, 공연장 휴게실, 옥외광장 등 주민편의시설과 주차장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신청사 건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

시는 지난 3월부터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 분청과 의회청사 기준 면적 2만2336㎡ 규모로 계획했다.

또한 지난 9일 개최된 익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참석자들로부터 익산시 청사에 기본적 업무 공간 외에 적절한 주민편의시설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지하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편의시설과 지하주차장 추가 설치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항이나 익산시

청사는 시민의 공간으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건축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신청사 건립 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약 1개월간 29개 읍·면·동의 통·리장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일반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익산시 홈페이지 익산시청사 건립 설문조사 방을 개설하여 시민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주민편의시설 및 지하주차장 등은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이지만 반대로 많은 추가 사업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 5급·6급 하위직 인사단행

익산시가 13일자로 5급 및 6급 이하 하위직 277명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익산시 하반기 정기인사는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에서 △화계과장 직무대리에 김우진 △주책과장 직무대리에 원석연 △기획예산과장에 전중순 △경영개발과장에 조정태 △위생과장에 김문혁 △소방과장에 모순영 △청소지원과장에 박재우 △감사담당관에 정홍진 사무관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홍보담당관에 전홍보담당관이었던 김형의 예술의전당 관장이 다시 발령돼 눈길을 끌었으며, 석산인허가 업무를 관장하는 신필규에 모순영과정을 발령한 점도 관심을 끌었다.

또 보직변경을 통해 △인사계장에 주영민 △문화계에 박경희 △홍보계에 김은하 주사가 임명됐다.

시 한 관계자는 "하달 중순부터 제8회 시의회 첫 인사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조기에 인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지만 인사조율상 다소 늦어졌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고군산군도 일일 손님맞이 환경정화활동

군산시는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지난 13일 장마기간 동안 해안가에 떠내려 온 부유쓰레기와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대청결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청결활동은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인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군산 군도를 찾는 유동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서객 및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청결활동에는 환경미화원, 새민금개발청, 시 직원 등 유관기관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안가에 떠내려

온 스티로폼 폐어망 등 부유쓰레기 50톤을 수거했으며, 특히 섬 구축구상에 방치된 100여개의 젓갈통과 어구 등 각종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한편 사에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피서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쓰레기 민원처리반 운영,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화수를 증화하여 운행하는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 전국 평생학습자 발표대회 열어

지난 12일부터 2일간 군산라마다호텔서

군산(시장 강임준)은 전국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인 '제5회 전국평생학습자 발표대회'를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군산라마다호텔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 북구, 강원 삼척시, 경기 화성시, 부산 사하구, 경북 김천시 등 전국 16개 시군구 평생학습자 및 평생교육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평생학습자의 성과 발표, 평생교육 추진 전략 강연 및 군산시 현장 탐방 등으로 진행됐다.

군산에서는 교육생 전경희씨가 '이 나이에 나의 재능을 발견했어'라는 주제로 행복학습센터의 재활동품을 활용한 취·창업 상품 만들기 평생교육 과정에 참가한 동기와 배우는 기쁨 및 향후 취·창업 계획을 진솔하게 발표해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사했다.

13일에는 대회 총평회에 이어 근대역사박물관과 군산시 평생학습관 등을 둘러보며 군산시의 근대역사문화유산 및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현황을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 간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155개 도시와 76개 교육청이 가입돼 있으며 평생학습문화를 정착 및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공모사업 및 평생학습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2007년 가입한 후 2017년부터 전북지역 대표로 활동 중이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지원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로 2회 연속 선정돼 총 1천 9백 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고충민원 해결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군산(시장 강임준)은 오는 20일 군산시청 지하 민방위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이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이동신문고의 상담분야는 일반 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환경, 도시 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

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참여해 생활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다양한 고충 상담을 운영하는 한편, 인접해 있는 익산시와 김제시 시민들의 고충민원도 함께 상담한다.

또한 상담장에는 이동 한의진료소를 설치해 고충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도울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민원이나 그 외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하니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토론회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3일 지역주민과 보건의료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의료중합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주제로 군산 지역의 보건의료 현황을 공유하고 그

동안 논의된 주요과제와 전략, 비전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학계(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와 관련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외)을 비롯해 보건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10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현황을 바탕으로 한 시민에게 필요한 보건사업을 제안하고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